



겨울의 산수화 '월출산 설경' 한파가 맹위를 떨친 지난 19일 강진군 성전면 월남리에서 바라본 남도 명산 국립공원 월출산이 내린 눈을 뒤집어쓴 채 아름다운 설경을 만들어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하고 있다. <강진군 제공>

# 나주 금성산 정상 상시 개방되나

### 운병태 시장,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에 공식 요청 ... 軍 "상생 방안 마련할 것"

나주시 진산(鎭山)인 금성산 정상은 12만 나주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기 위한 관·군 간 논의와 절차가 본격화 된다.

나주시에 따르면 운병태 시장은 최근 시청사에서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 관계자들과 만나 지난 달 이뤄진 공군 방공포대 이전에 따른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을 공식 요청했다.

운병태 시장은 이 자리서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에 대한 시민의 오랜 염원을 전달하며 2개 방안을 군에 검토해줄 것을 제안했다.

첫 번째 안은 산 정상 공군부대 완전 이전을 통해 해당 부지를 금성산 등산로 개설, 관광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두 번째 안은 정상 공군부대가 그대로 주둔할 경우 부대기능 유지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않는 공간, 주변 부지를 나주시와 공동 활용하는 방안이다.

시는 해당 제안이 받아들여질 경우 군부대와 협의의 통해 산 정상부를 연결하는 등산로 개설, 전망대 설치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운 시장은 제안 설명과 더불어 산 정상부 지뢰 제거 현황 및 안전성 확보 방안, 신무기체계 도입 관련, 타 지자체 개방 사례 및 관·군 간 협력 사항 등

에 대한 관·군의 지속적인 협의를 강조했다.

운 시장은 "나주시민들에게 금성산은 단순 산이 아닌 정신적인 고향이자 수호신, 어머니의 품 같은 존재"라며 "과거 안보 논리에 국한하기 보다는 이제는 시민들과의 상생을 가치로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을 위해 군이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관계자는 "나주시민들의 산 정상 개방에 대한 염원을 잘 알고 있다"라며 "군에서도 점진적으로 찾아 시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어 "군은 안보와 더불어 시민의 삶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산 정상 상시개방과 관련된 나주시의 제안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협의해가겠다"라고 덧붙였다.

나주시는 이번 간담회에서 공식 제안한 금성산



운병태 나주시장이 최근 공군 미사일방어사령부 군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금성산 정상 상시개방을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정상 상시 개방 추진 안에 대해 군부대와 협의의 지속하고 구체적인 계획 수립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한편 금성산은 해발 451m, 4개의 봉우리(노적봉·오도봉·다북봉·정녕봉)로 이루어져있으며 나주의 진산 역할을 하고 있다.

/나주=손영철 기자 ybson@kwangju.co.kr

# 화순군민, 내년부터 운주사 무료 관람

내년 1월 1일부터 화순 군민의 운주사 관람이 무료로 변경된다.

화순군과 대한불교조계종 운주사는 2023년 새해부터 화순군민들의 운주사 관람 요금을 전면 무료화한다고 20일 밝혔다.

그동안 운주사는 문화재보호법에 의해 군민과 타 지역 관광객 구분 없이 관람료를 일괄적으로 징수해 왔다. 이 때문에 화순군민들을 비롯한 군민들 사

이에 관람료 면제에 대한 논의가 꾸준히 있어 왔다.

민선 8기 들어 군민 문화 향유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화순군과 운주사의 관람료 면제 합의에 따라, 모든 화순군민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운주사 측과 수차례 논의를 통해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군민 문화생활 향유

확대를 위해 큰 결심을 해 주신 무안 주지스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사찰과 지역 사회가 상생하는 새로운 모델이 될 것이다"며 "운주사와 주변 문화유산의 소중한 가치가 더욱 확산될 수 있게 보존을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도암면에 소재한 운주사는 국가지정 문화재 사적 제312호로 지정 관리되고 있으며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에 등재돼 있어 세계유산 등재를 추진 중이다.

/화순=조성수 기자 css@kwangju.co.kr

루돌프 빨간코 찾으면 금 1돈...메타프로방스 선물이 주렁주렁

# 3년 기다린 담양산타 만나세요

### 23~25일 윈도십 등서 야간경관 조명·공연 등 다채

"산타축제 오세요."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담양 산타축제가 3년 만에 다시 열린다.

담양군에 따르면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메타프로방스와 윈도십 일원에서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주제로 담양산타축제가 열린 예정이다.

3년 만에 열리는 제4회 담양산타축제는 담양의 특색을 담은 크리스마스 경관 조명과 포토존, 다양한 공연과 이벤트, 마켓을 운영해 담양에서의 선물 같은 하루를 선사한다.

관광명소인 메타세쿼이아길을 선물상자 조명과 리본으로 장식하고 메타프로방스 곳곳에 야간경관 조명과 포토존을 설치, 이국적인 분위기를 살려 방문객들이 이간까지 즐길 수 있도록 준비했다.

중앙공원에는 성탄트리와 조명을 설치하고 중앙로에는 포인세티아꽃을 곳곳에 배치해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한껏 담았다.

고척대 페어리드와 캐럴, 재즈, 마술 퍼포먼스 등 다양한 공연도 준비됐고 윈도십 중앙공원에서는 이어지는 버스킹공연과 담빛예술창고 산타음악



이병노 담양군수가 산타복장을 하고 '산타와 함께하는 특별한 크리스마스 파티'를 홍보하고 있다. <담양군 제공>

회, 담양 LP음악축전소의 캐럴 페스티벌을 통해 연말 분위기를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또 메인 이벤트인 '루돌프 빨간코를 찾아라'는 경품추첨을 통해 매일 금 1돈과 다양한 담양 특산품을 선물하고, 영수증 이벤트, 스탬프투어 이벤트, 크리스마스 프리마켓 운영을 통해 지역 내 소비가 순환될 수 있도록 유도했다.

담양군 관계자는 "산타축제는 겨울 관광산업을 선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3년 만에 열리는 담양산타축제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방문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담양=한동훈 기자 hdh@kwangju.co.kr

# "장성군에 기부하면 별초 대행 서비스"

### 군,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5개 확정...템플스테이·농특산물 등

장성군이 지난 15일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열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5개 품목을 확정했다.

장성군이 최종 선정된 답례품은 ▲백양사 템플스테이 이용권 ▲고객 맞춤형 장성 1박2일 여행권 ▲장성군 명품 농특산물 ▲장성사랑상품권 ▲별초 대행 서비스다.

'전남 대표 웰니스 관광지'로 선정된 백양사 템플스테이는 전년고찰 백양사에서 수행자의 일상을 경험하는 장성군의 치유 관광 콘텐츠다. 국내는 물론 해외 관광객의 방문도 꾸준하다.

고객 맞춤형 장성 1박2일 여행권은 축령산, 장성호, 황룡강, 유네스코 세계유산 필암서원 등 장성의 명소를 여행하는 관광상품이다. 여행객의 수요를 반영해 농촌 체험, 전통시장 장보기 등 다양한 코스를 만들 예정이다.

기부액의 30%를 장성군 온라인 소품몰 적립금으로 받으면 농특산물을 구입에 사용할 수도 있다. 내년 1월부터 운영되는 장성군 소품몰에는

현재 43개 농가가 120개 품목을 등록했다. 농가 입장에서는 답례품 선정과 함께 온라인 소품몰 입점 기회가 제공되어 효율적인 판로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

장성사랑상품권은 장성 지역 1720개 가맹점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다. 방문객 증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정했다.

별초 대행 서비스는 명절, 기일 등에 고향 방문이 어려운 향우를 위해 준비했다.

장성군은 추후 답례품 선정 결과 공고와 고향사랑(e)을 시스템 등록 작업을 거쳐 내년 1월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접수 및 답례품 제공을 시작할 방침이다. /장성=김용호 기자 yongho@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